

영화 '땃글부대' 손석구, "전 이리 저리 휘둘리며 살 거예요"

“최근 연기 중 가장 난도 높은 연기해”
 “대화에 대화 거쳐 캐릭터 완성해 가”
 최근 2년 간 영화·드라마 6편 출연해
 “쉬지 못하는 성격 계속 경험하고 싶어”

최근 배우 손석구(41)의 행보는 딱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종합무선, 제작년 4월에 나온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기점으로 그는 살인마에서 경찰로, 경찰에서 군 장교로, 군 장교에서 다시 형사로, 그리고 이번엔 기자가 돼 관객을 다시 만난다.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그가 출연한 영화·드라마만 6편. 그렇다고 다작(多作)만 한 건 아니다. 매 작품 캐릭터 변화 폭도 컸다. 그 진폭은 그가 연기한 인물들의 외형만 봐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지점에서 보면 영화 '땃글부대'(3월27일 공개)에서 손석구가 맡은 '기자 임상진'은 상대적으로 평범해 보인다.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 o난감'에서 연기한 캐릭터의 개성과 비교하면 특색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다. 그런데 영화 개봉을 앞두고 만난 손석구는 “오히려 난도가 매우 높은 연기였다”고 말했다.

장강명 작가가 2015년 내놓은 동명 소설이 원작인 '땃글부대'는 기자 임상진이 막강한 권력을 쥔 대기업 만전그룹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 두 개를 쓰는 과정을 그린다. 첫 번째 기사가 오보로 물리며 1년 넘게 정직 당한 임상진은 만전그룹이 여론 조작 팀을 운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그 실체를 고발하는 두 번째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에 나선다. 손석구는 “이야기는 역동적으로 흘러 가지만

사실 기자가 하는 일이라는 게 액티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관객이 캐릭터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령 '범죄도시2'의 강해상은 캐릭터를 확 드러낼 수 있어요. 직업도 없고요. 호쾌한 액션을 위해서 태어난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자라고 한다면 좀 다르죠. 일단 임상진이 기자라는 걸 보여줘야 하고, 그가 기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캐릭터가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간단한 대사나 움직임으로 이 사람이 기자라는 것과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다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아주 디테일한 연기를 해야 했어요.”

특정 직업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으레 그렇듯이 손석구 역시 실제 기자를 만났다. 기자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봤다. 그는 “요즘엔 워낙 여기저기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하나씩 종합해갔다”고 말했다. 장강명 작가와도 만났다고 했다. 작 작가는 기자 출신 작가. 손석구는 작 작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기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상, 시나리오에 쓰인 임상진에 관한 내용들이 리얼해지는 걸 느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연기가 쉬워진 건 아니었다”며 “임상진은 실제 없는 존재를 마주하기 때문에 그 반응을 관객이 알아챌 수 있게 드러내는 게 만만찮은 작업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감독님 그리고 동료 배우들과 대화를 정

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계속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토의를 거치다보니 하루에 한 신(scene)도 찍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최대한 다양한 버전으로 연기했죠.” 손석구는 자신도 감독도 이 작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개봉을 곧 앞두고 있던 해도 긴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시나리오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영화가 나왔어요.”

최근 손석구는 1인 기획사 겸 콘텐츠 제작사를 차렸다. 연기만 하기에다 배우로 보이는 데 또 다른 도전에 나선 것이다. 그는 최근 수년 간 설 연휴를 빼면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일했다고 했다. “일어나서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한 뒤에 씻지도 못하고 자는 때도 많았다”는 게 손석구가 말하는 일상이다. '나의 해방일지' 이후 인기가 치솟았지만, 그런 변화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볼 새도 없이 달렸다고 한다. 그는 “이젠 좀 잠깐이라도 쉬어가며 일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요즘 젊은 배우들 보면 한 작품 끝나면 6개월 정도 쉬었다가 새 작품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성격상 그렇게 못해요. 쉬어야 하는데... 전 6개월까진 못 쉬 것 같고 그래도 내년부터는 작품 사이에 한 두 달은 쉰 수 있겠고요.”

그는 자기 성격을 “여기 저기 휘둘리는 타입”이라고 했다. 쫓겨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저기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 저것 모두 경험해보려고 한다는 얘기가었다. “한 번 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경험해야죠. 요즘엔 가능성도 많고 정보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지 않으면 편협해질 것 같습니다. 대쪽 같은 것도 멋있지만 전 이렇게 가는 걸 선택했어요.”

뉴스



원위, 1년3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



보이밴드 '원위(ONEWE)'가 약 1년3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다. 27일 소속사 RBW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내달 미니 3집 발매

원위 미니 3집 '플래닛 나인 : 아이소트로피(Planet Nine : ISOTROPY)'의 로고 모션을 이날 0시 게재했다. 영상에는 빠르게 흘러가는 필름 화면 위로 원위가 전개해 온 '플래닛 나인(Planet Nine) 시리즈'의 앨범명이 순차적으로 등장한다. 앨범명인 '아이소트로피(ISOTROPY)'는 상태가 바뀌어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 등방성을 뜻한다.

신보 스케줄 플랜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위는 오는 28일 콘서트 포토회를 시작으로 트랙리스트, 이미지 포스터, 리릭 포스터, 뮤직비디오 티저, 하이라이트 메들리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완전체 컴백을 기념해 오는 5월4-5일 단독 콘서트 '원위 3rd 라이브 콘서트 [O! 뉴 에볼루션 III]'(ONEWE 3rd Live Concert [O! NEW E.volution III])을 연다.

원위의 완전체 컴백은 지난해 1월 첫 영어 정규 앨범 '그래비티(GRAVITY)' 발매 이후 약 1년3개월 만이다. 최근 멤버 용훈과 강현이 전역했다.

'데뷔' 유니스, 글로벌 슈퍼우먼 될까

그룹 '유니스(UNIS)'가 당차게 데뷔한다. 유니스는 27일 오후 6시 첫 번째 미니앨범 '위 유니스(WE UNIS)'를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너와 나의 이야기, 너와 나의 시작'을 테마로 한다. 우리 안의 다양한 감정들을 소녀들의 다채로운 색으로 담아냈다. 타이틀곡 '슈퍼우먼(SUPERWOMAN)'은 아프리카와 몸바톤, 하우스 장르가 결합된 댄스곡이다. 누구든 원하면 언제든지 스스로의 슈퍼우먼이 될 수 있다는 유니스의 당당하고도 사랑스러운 포부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풋풋한 사랑에 설레는 감정을 귀여운 가사로 녹여낸 '버터플라이즈 드림(Butterfly's Dream)', 자신감 충만한 10대 소녀들의 상큼함을 키친한 가사로 표현한 '왓츠키드(Whatchu Need)',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와 무대를 향한 질주 본능을 파워풀하게 담아낸



'도파민(Dopamine)', 꿈을 향해 나아가는 벅찬 감성을 노래하는 '꿈의 소녀(Dream of girls)'까지 수록됐다.

방탄소년단 정국, '골든'美 '빌보드 200' 5개월 장기집권

예고대로 뷔 신곡 '프렌즈'·'핫100' 65위 데뷔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장기집권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정국의 첫 솔로 앨범 '골든(GOLDEN)'은 30일 자 '빌보드 200'에서 113위를 차지하며 20주 연속 차트인 했다. '골든'은 한국 솔로 가수 음반의 '빌보드 200' 최장기 차트인 기록을 매주 자체 경신 중

이다. 앞서 빌보드에 소셜 미디어에서 예고한 것처럼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 뷔(V·김태형)의 신곡 '프렌즈(FRIENDS)'는 이번 주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65위로 데뷔했다. 뷔가 솔로로서 '핫100'에 진입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제작된 뷔는 SBS TV 드라마 '그 해 우리는'

OST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로 '핫100'에서 7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Layover)' 선공개 곡 '러브 미 어게인(Love Me Again)'이 96위, 타이틀곡 '슬로우 댄싱(Slow Dancing)'이 51위를 차지했다.

이와 별개로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겸 솔로가수 제니가 캐나다 스타 싱어송라이터 위켄드·미국 배우 겸 가수 릴리 로즈 멜로디 뎀과 함께 부른 HBO 시리즈 '디 아이돌' OST '원 오브 더 걸스(One Of The girls)'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58위를 차지하며 이 차트에 총 13주간 머물렀다.

K팝 또 다른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의 미니 13집 '위드 유-스(With YOU-th)'는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102위를 기록했다.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한 뒤 4주 연속 차트인 했다. K팝 4세대 간판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의 미니 3집 '이치(EASY)'는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112위를 차지하며 4주 연속 차트인했다.

한편 이번 주 '핫100' 1위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테디 스위그스의 '루즈 컨트롤(Lose Control)'이 차지했다.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정규 7집 '이터널 선샤인'이 1위에 올랐다. 미국의 떠오르는 싱어송라이터 벤슨 분(Benson Boone)의 '뷰티풀 싱스(Beautiful Things)'가 '글로벌 200' 정상을 지켰다.

배우 김수현, 얼마 받았나... '눈물의여왕' 회당 8억설

제작비 약 400억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배우 김수현(36)의 '눈물의 여왕' 회당 출연료 8억설이 제기됐다. tvN 주말극 '눈물의 여왕'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은 “김수현의 회당 출연료 8억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실제 출연료와 거리가 먼 액수”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김수현이 '눈물의 여왕' 출연료로 회당 8억원, 총 16주작 함께 128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제작비 약 400억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작인 '쿠방블레이

'어느 날'(2021) 캐스팅 당시에는 회당 출연료 5억설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김수현이 어느 날보다 출연료를 삭감, '눈물의 여왕'에선 회당 3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3년 만에 '눈물의 여왕'으로 복귀했다. 3년 차 부부인 용두리 이장 아들 '백현우(김수현)·퀸즈 그룹 재벌 3세 '홍해인'(김지원)이 위기를 헤쳐가며 이룬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다. 박지은 작가와 '별에서 온 그대'(2013-2014) '프로듀사'(2015)에 이어 세 번



째 호흡을 맞췄다. 1회 시청률 5.9%(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6회 자체 최고 기록인 14.1%를 찍었다.